

포인트였다
꽃이 꿀을 알았더니



KIA 루키 박정수, 강타선 넥센 상대 배짱투 좌·우타자 모두에게 통하는 체인지업 '강점'



“아직 한 경기 뿐이라 말을 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대진 코치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가득 담겨있었다. KIA 타이거즈의 96년생 고졸 신인 박정수가 마운드 복덩이로 떠올랐다. 박정수는 지난 8일 넥센과의 원정경기에서 프로 첫 선발 등판을 소화했다. 에이스 양현종의 부상과 김병현 등의 부진 속에 마내 박정수에게 기회이자 어려운 짐이 주어졌다.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마내 박정수는 씩씩했다. 넥센의 막강 타선을 상대로 5이닝 2실점의 호투를 선보였다. 볼넷은 2개, 탈삼진은 7개를 기록했다. 비록 야타고 선배

윤석민의 불른 세이브로 프로 첫 승을 날리기는 했지만 기억에 남을 하루였다. 박정수는 지난 3일 kt전에서는 스티븐슨이 일찍 무너지자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해 6이닝 4실점(2자책)의 피칭을 선보이기도 했다. 팬들에게도 낯설었던 이름. 그러나 박정수는 이대진 투수 코치가 미리 점찍어둔 자원이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서 박정수의 이름이 KIA 선수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6월 잠시 1군에 등록돼 3일 두산상 상대로 프로 데뷔전을 치르며 짧지만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리고 마운드 위기가 찾아오자 다시 박정수가 등장했다. 이번에는 더 강렬한 모습이었다. 이대진 코치는 “2군에서 꾸준히 로테이션을 소화하면서 6이닝 이상 성적을 내었다. 1회와 6회 스피드 차이가 거의 없기도 했다”고 박정수의 1군 풀업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일찍부터 눈여겨보았던 점은 고졸 신인답지 않은 ‘의욕’이었다. 이 코치는 “캠프 기간 어리지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선수가 약처럼 잠고 하더라. 버티는 힘도 있고 자신이 충분히 코치에게 어필을 했다. 신인이라 어차피 의욕은 남치고 몸 상태도 아직 프로에 맞게 준비되지 않은 만큼 천천히 지켜봤다. 처음부터 무리를 하면 부상이 올 수 있고 144경기를 해야하는 과정도 중요했다. 2군에서 꾸준히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꾸준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선배들도 어리지만 열심히 훈련을 소화하고 따르는 박정수를 ‘포메이’라고 부르며 각별하게 챙기고 있다. “아직 한 경기”라고 냉정한 평가는 했지만 기대감도 크다. 이 코치는 “오른손 왼손 모두에게 통하는 체인지업이 있고, 커브가 치기 힘든 각이다. 언더에 커브 슬라이더도 좋고 무엇보다 공격적인 성향이 좋은 선수다. 본인 스스로 이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앞으로 위기도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꾸준한 모습 보여준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버티기’ 성공 광주FC 이번엔 ‘뒤집기’

11일 K리그 클래식 22R, 울산 상대 설욕 다짐 브라질 까시아노 데뷔전... ‘해결사’ 김호남 복귀

‘버티기’에 성공한 광주 FC가 울산을 상대로 복수전에 나선다. 광주 FC가 11일 오후 7시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K리그 클래식 22라운드 울산 현대와의 대결을 갖는다. 울산은 앞선 만남에서 광주에 쓴 패배를 안겨줬던 팀이다. 개막 이후 3경기 무패(2승1무)를 달리고 있던 광주는 울산과의 4라운드에서 좋은 플레이를 하고도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다. 59%의 점유율로 22차례의 슈팅에서 15개를 유효슈팅으로 만들었지만 승리는 울산의 차지였다. 광주는 자책골로 흐름을 내준 뒤 후반전 주가 실점을 하면서 0-2로 무릎을 꿇었다. 이후 광주는 3연패에 빠지면서 하락세를 탔다. 울스타전 휴식기를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경기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만나게 된 울산. 광주는 이번 경기에서 화끈한 승리를 거두며 지난 패배를 만회하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최근 6경기에서 4무2패를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옥의 원정 10연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계속된 원정길로 체력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 2경기에서 FC 서울과 전북 현대라는 난적을 만났지만 두 경기를 모두 1-1로 마무리하면서 값진 승점을 추가했다. 선두 전북과 3위 서울을 상대로 광주만의 경기를 펼치면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8일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선제 실점을 기록하고도 조용태가 동점골을 터트

리면서 1위 팀을 상대로 승점 1점을 가져올 수 있었다. 컨디션 난조를 보였던 조용태가 골 맛을 본 것도 반갑다. 광주는 이번 울산전에 새 얼굴을 선보인다. 새로 영입한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 까시아노가 승리를 위해 투입된다. 최전방 공격수인 까시아노는 걸출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한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골 결정력 부재에 아쉬움을 삼켰던 광주의 공격에 힘을 보태 줄 선수가 될 전망이다. 출격 준비는 이미 끝났다. 광주 훈련에도 참가하면서 동료들과 손발을 맞췄다. 데뷔전을 앞둔 까시아노와 함께 경고누적으로 지난 라운드 쉬어갔던 베테랑 수비수 이종민과 ‘해결사’ 김호남이 돌아온다. 공격진을 재정비한 광주가 시원한 공세로 울산전 설욕전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발빠른 판단, 단타를 2루타로

강정호, 2안타 1타점 1득점
호수비 결들이며 팀 5연승

강정호(27·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적극적인 주루로 2루타와 득점을 만들고 췌기 타까지 터뜨렸다. 강정호는 9일(한국시각) 미국 펜실베이

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계속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내셔널리그 홈 경기에 4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 2루타 1개 포함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59에서 0.263으로 올랐고 타점은 27개, 득점은 23개로 늘었다. 말티히트는 지난달 26일 신시내티 레즈전 이후 12경기 만이다. 연속 안타는 4경기째 이어졌다. 강정호는 첫 타석에서 폭풍 같은 주루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0-2로 끌려가던 2회 말 첫 타자로 나온 강정호는 샌디에이고 선발 앤드루 캐시너의 첫 5구를 지켜보면서 풀카운트를 만든 다음 파울에 이어 7구째 시속 155km짜리 속구를 받아쳐 중견수 방면으로 타구를 보냈다. 샌디에이고 유격

수 알렉시 아마리스타가 슬라이딩하면서 잡으려다가 놓쳐 공이 굴절된 사이 강정호는 2루까지 내달려 단타성 타구를 올 시즌 10번째 2루타로 만드는 끈기를 선보였다. 강정호는 팀이 2사 후 안타 2개와 볼넷 2개로 3득점하며 4-2 역전에 성공한 8회말 2사 1, 2루 내 번째 타석에서 승부에 췌기를 박았다. 샌디에이고 두 번째 투수 브랜던 마우리의 6구째 슬라이더를 당겨쳐 1타점 좌전 적시타를 기록, 리드를 3점으로 벌리고 2경기 연속 타점을 올렸다. 강정호는 9회초 수비 2사 1루에서 데릭 노리스의 강습타구를 넘어지면서 잡아내 1루로 뿌려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직접 만들어냈다. 5-2로 승리한 피츠버그는 5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부터 5연승을 달렸다. / 연합뉴스



속시원하게 안 터지네
속 터진 추신수

1사 2, 3루서 땅볼 1타점
2사 만루서 중견수 뜬공
1사 1, 3루 희생플라이만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15번째 2루타를 치며 타점 2개도 수확했으나 정작 득점 기회에서 시원한 안타를 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추신수는 8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1안타, 타점 2개를 기록했다. 세 경기 만에 안타를 터뜨린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30(296타수 68안타)으로 약

간 올랐고, 시즌 타점은 38개로 늘었다. 텍사스는 득점권에서 15타수 1안타로 반타에 허덕여 잔루를 11개나 남긴 끝에 4-7로 패해 5연패에 빠졌다. 1회 삼진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0-5로 뒤진 3회 1사 2,3루에서 1루 땅볼로 타점을 올렸다. 애리조나 우완 선발 투수 제러미 헬릭슨의 빠른 볼(시속 145km)을 잡아당겼지만, 타이밍을 제대로 맞지 못해 땅볼에 그쳤다. 2-5로 따라붙은 4회 2사 만루에서 다시 등장한 추신수는 헬릭슨의 체인지업을 퍼 올렸으나 중견수 뜬공으로 잡혔다. 추신수는 3-7로 점수가 더 벌어진 6회 1사 1,3루에서 왼손 투수 앤드루 채핀에게서 좌익수 쪽 희생플라이를 날려 3루 주자를 홈에 불러들였다. 8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좌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쳤지만, 승패와 무관했다. / 연합뉴스